

서울특별시의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방지 대책마련 촉구결의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5년 6월 8일
발 의 자 : 이순자, 김영한, 박마루, 김동욱,
김선갑, 생백진, 오승록, 우창윤,
이신혜, 이복근, 박성숙

1. 주 문

서울특별시의회는 메르스 확산과 국민 불안에 대한 작금의 현실을 심각히 생각하며 정부 및 서울시의 보다 효과적인 대책 방안과 국민 불안해소를 촉구한다.

2. 제안이유

- 지난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 감염 확진 환자 발견 이후 6월 8일 현재 메르스로 인한 감염 현황은 확진환자 87명, 그 중 서울거주자는 5명 이며 서울시는 접촉자 1,652명중
 - 시설격리 19명
 - 가택격리 1,387명
 - 능동감시 169명
 - 확인중 7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 그 동안 정부 대책을 보게 되면 질병관리본부장을 대책반 책임자로 선임하고
 - 국가 방역·검역 인력 보강
 - 변이 여부감시 강화
 - 환자격리 조치 등 보다 낮은 단계인 주의단계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 불안감 해소차원에서 발생한 지역, 병원 및 환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그러나 5월 20일 첫환자 발생때부터 매일 1명~2명씩 증가하다가 5월 29일에는 6명, 6월 1일에는 7명 등 결국 6월 8일에는 87명으로 증가되고, 결국 가장 심각한 3차 감염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더해져 사실이 아닌 소문이 돌게 되면서 불안이 더욱 가중된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서울시의회는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다음과 같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 송 처 :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서울특별시의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방지 대책마련 촉구결의안

- 지난달 20일 국내 첫 메르스 감염 확진이래 확산의 진원지가 된 병원의 실명(평택성모병원)이 6월4일에 첫 공개되는 등 정부는 처음부터 관련 정보를 비공개 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확산 시켰다.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국민은 감염병 발생상황, 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파속도가 빠른 질병을 차단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신속한 공유는 필수적이다.

허나, 정부는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는 바람에 메르스 확산을 잡지 못하고 초등대응에 실패하였다.

- 이에 정부는 반성하고 6월 7일 오전 11시 메르스 감염경로 병원 서울 6곳을 비롯한 전국 24곳의 병원을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정부는 초기단계의 실패를 반성한 만큼 현재 주의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되어있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을 경계단계 이상으로 격상시키고
청와대가 직접 관장하는 범정부적 대책반을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 서울시는 사태의 엄중함을 알고 재개발 조합원 총회 접촉자 1,163명을 가택격리 조치하고, 기존 제1부시장이 하는 대책본부장을 시장으로 격상시켜 행정력을 총동원하려는 모습은 바람직하나
아직 삼성서울병원을 거쳐간 35번 환자가 참석한 모임 참가자 1,565명 중 95%인 1,488명은 연락 및 사후대책 지시가 되고 있으나, 나머지 77명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 소재 파악과 사후대책 지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업무협조 단계에서 서로 책임 전가하는 모습은 행정에 대한 불신과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메르스 확산 방지대책에는 민·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있을 수 없으니, 모두 힘을 합쳐 작금의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하라.

- 문제된 전국 24곳 병원이 이제 밝혀짐으로써 국민들로부터 기피하는 낙인효과로 병원의 경제적 손실과 환자의 불편함은 있겠으나, 그 보다 국민 전체의 안전과 불안해소가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있는 것이므로, 정부는 앞으로도 병원명단, 환자 관리실태 등 모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는 불확실 정보를 차단하고, 과도한 공포심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이 되지 않도록 하며, 국민 스스로도 보다 성숙한 자세로 작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노력 할 것을 촉구한다.
- 끝으로 우리 서울시의회는 전체 의료계의 직업 윤리와 의사의 본분에 따라 위험한 환자와 접촉 하면서 전염병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의료종사자에게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국민의 생명을 최후까지 지켜 줄 것이라 믿는다.

2015. 6. 8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